

[ Artist's Talk with Lee Sang Hyun ]

## 이 상 현 , Lee Sang Hyun

### 가브리엘 데스트레의 해탈 Gabrielle d'Estrees's Nirvana

Running time 6.54min, 2008

1599년 4월 10일, 가브리엘 데스트레는 프랑스 국왕 알리 4세와 결혼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갑자기 사망한다. 이들의 결혼 성사여부에 따라 유럽의 역사가 바뀔 수도 있었던 이 미스테리한 사건의 진실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당시 파리에서 암약했던 이태리의 외교관이자 비밀 첩자인 본시아니가 메디치가에 보낸 비밀 보고서와 알리 4세가 그녀 사후 불과 1년 후에 마리 드 메디시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 정황을 놓고 보면 가브리엘의 죽음 이면에 깃든 정치적인 그림자를 지울 수가 없다. 루브르에 소장된 이 그림의 제목은 <가브리엘 데스트레와 그 자매>이다. 반지를 손에 잡고 있는 오른쪽의 여인이 가브리엘이고 왼쪽의 여인이 가브리엘의 자매인 발라르 공작부인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그녀의 자매가 공작부인이 된 것은 가브리엘 사후 28년이 지난 후였다. 그러므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가브리엘의 죽음 뒤에 숨겨져 있는 정치적 흑막과, 가브리엘을 죽인 용의자에 대한 암시를 그림으로 남겼음을 유추할 수 있다. 흰 살결, 여인의 젖꼭지는 가브리엘이 왕자를 임신한 것을, 손에 든 반지는 왕관을 의미하여 가브리엘의 지위에 도전하는 또 다른 정치세력을 드러내고 있다. 가브리엘이 사망했을 때 그녀는 임신중이었다. 알리 4세는 가브리엘 사후 앙리에트 당트라그와 사랑에 빠진다. 왕자를 낳으면 국왕이 앙리에트를 왕비로 맞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이들의 관계는 시작되었는데 그 결혼 서약서는 지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나는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가브리엘 데스트레와 그 자매>와 볼프람 플라이쉬하우어(Wolfram Fleischhauer)가 쓴 소설 『퍼플라인(Purple line)』을 바탕으로 이 작업을 하였다. 멀고 먼 서양에서 가브리엘 사건이 일어난 1599년, 조선에서는 임진왜란이 끝난 해이며 서애 유성룡이 반대파의 모함을 받고 향리인 하회(河回)로 돌아온 해이다. 서애는 억울했으나 나라를 구했으니 그것으로 되었고, 세상사를 잊기로 했다.

세상은 참으로 불가사의하다. 정의가 항상 이길 수는 없는가 보다. 내 작업 속에서 먼 이국 땅, 제국의 여인 가브리엘은 정적을 용서하고 스스로 해탈한다. 용서한다는 것, 잊는다는 것, 그것은 정의가 반드시 이길 수 없는 이 사바세계에서 스스로를 구하는 일임에 틀림없다고 믿는다.

### 노스텔지어 Nostalgia

Running time 11.12min, 2008

1930년대 일본 소설가들이 쓴 한국관계 소설에는 일정한 정형(定形)이 있었다. 근대의 대도시 도쿄의 문명과 소란스러움에 지친 일본 지식인은 어김없이 조선을 찾는다. 그들은 시모노세키에서 관부 연락선을 타고 부산을 거쳐 기차를 타고 경성에 도착하여 철도호텔(지금의 조선호텔)에서 묵은 후 금강산 관광을 한 후 평양으로 갔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대개 조선여자와 로맨스에 빠진다. 이중적이고도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식민지 조선의 낙후성에 혀를 차면서도 동정적 시각에서 바라보기도 하며 아직 근대화가 안된 조선을 그들의 피안처로 생각을 했다. 전후에 제작된 나루세 미키오(Mikio Naruse)감독의 「부운(浮雲:인생을 덧 없는 뜬 구름에 비유한 말)」 역시 식민지 베트남에 파견되었던 두 일본인 남녀가 전후 폐허의 일본사회에 적응 못하고 떠돈다는 내용이다. 노스텔지어는 1939년 모던 일본의 조선 특별호에 게재되었던 하마모토 히로시(1890-1959)의 『여수(旅愁)』를 보고 지은 제목이다. 흔히 조선의 미를 처음 발견하고 그 이론적 체계를 세웠다는 야나기 무네요시의 조선미에 대한 접근도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다. 작품에 사용된 아카이브는 1910년대 성명미상의 사진가에 의해 촬영된 평양기생과 제국 장교의 초상사진이고 사용된 노래는 193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 장세정의 “외로운 화장대”이다.

### 선인기우도 仙人騎牛圖

The painting of Hermit riding on the Cow. Running time 14.05min, 2007

선인기우도는 노자가 속세를 버리고 도와 덕이 흐르는 신선의 세계를 소를 타고 찾아 떠나는 내용을 그린 그림이다. 작가는 비디오 작품 속에서 김홍도가 청의 옹계방에게 받았다는 1억달러 짜리 청동소를 찾아 현실과 역사, 김홍도의 그림 속을 헤메인다. 작가는 조선의 아이덴티와 자본주의 사회의 물질에 대한 집착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